

“진짜 사장 현대차는 교섭에 나와라”

하청노동자 1,675명 원청교섭 요구...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수위, 현대차에 달렸다”



금속노조가 ‘진짜 사장’ 현대자동차에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현대차가 끝내 교섭을 거부한다면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2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원청교섭 불응 현대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 조합원 7백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 10개 지회, 1,675명에 달하는 조합원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현대자동차에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등 3개 지회, 1,292명은 사용자성이 있는 현대글로벌비스 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한 금속노조 조합원 2만 1천 명 중 1만 6천 명이 현대차그룹사다”라며 “현대차는 아직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호통쳤다.

박상만 위원장은 “올해 원청교섭 쟁취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위원장의 명운을 걸겠다”며 “7월 15일 총파업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8월 총파업, 9월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 원청교섭 쟁취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기호 노조 울산지부장은 “12.3 내란 속에서 민주노총이 길을 열고 금속노조가 그 길의 선봉에 섰던 것처럼 19만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원청교섭 투쟁 승리하자”라고 호소했다.

김선영 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11년 전 사람답게 살고자 노조를 만들었지만, 원청 현대차는 대리점을 폐점시키며 조합원 고용승계를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투쟁으로 노조법 2·3조가 시행됐음에도 현대차는 여전히 지회가 요청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원청교섭 쟁취는 비정규직만의 싸움이 아니다. 포기하지 말고 함께 싸워 승리하자”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미옥 노조 울산지부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장은 “현대차가 수천 대의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투입해 노동자가 필요 없는 공장을 만들려 한다”고 폭로했다. 이어 “노동자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노동자 생존권을

짓밟는 데 쓰는 자본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강력한 7월 총파업 투쟁으로 현대차 원청을 반드시 교섭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선언했다.

박진현 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동차보안지회장은 “23년간 울산공장 정문 초소와 영빈관 등에서 근무하며 원청 지시 없이 움직인 적이 없는데도 현대차는 지노위 심문회의에서조차 ‘해당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사측의 뻔뻔한 행태를 비판했다.

박 지회장은 “현대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업무지시 흔적을 지우기 위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현대차가 원청교섭을 끝내 거부하고 시간만 끈다면 보안노동자들은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4월 29일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했다. 오는 1일 심문회의가 예정돼 있다.

금속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 대응과 별개로 교섭 개최 역시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은 4차례, 현대글로벌비스 하청 노동자들은 3차례 교섭을 열었다. 원청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이 밝힌 교섭 일정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